

울림과 잠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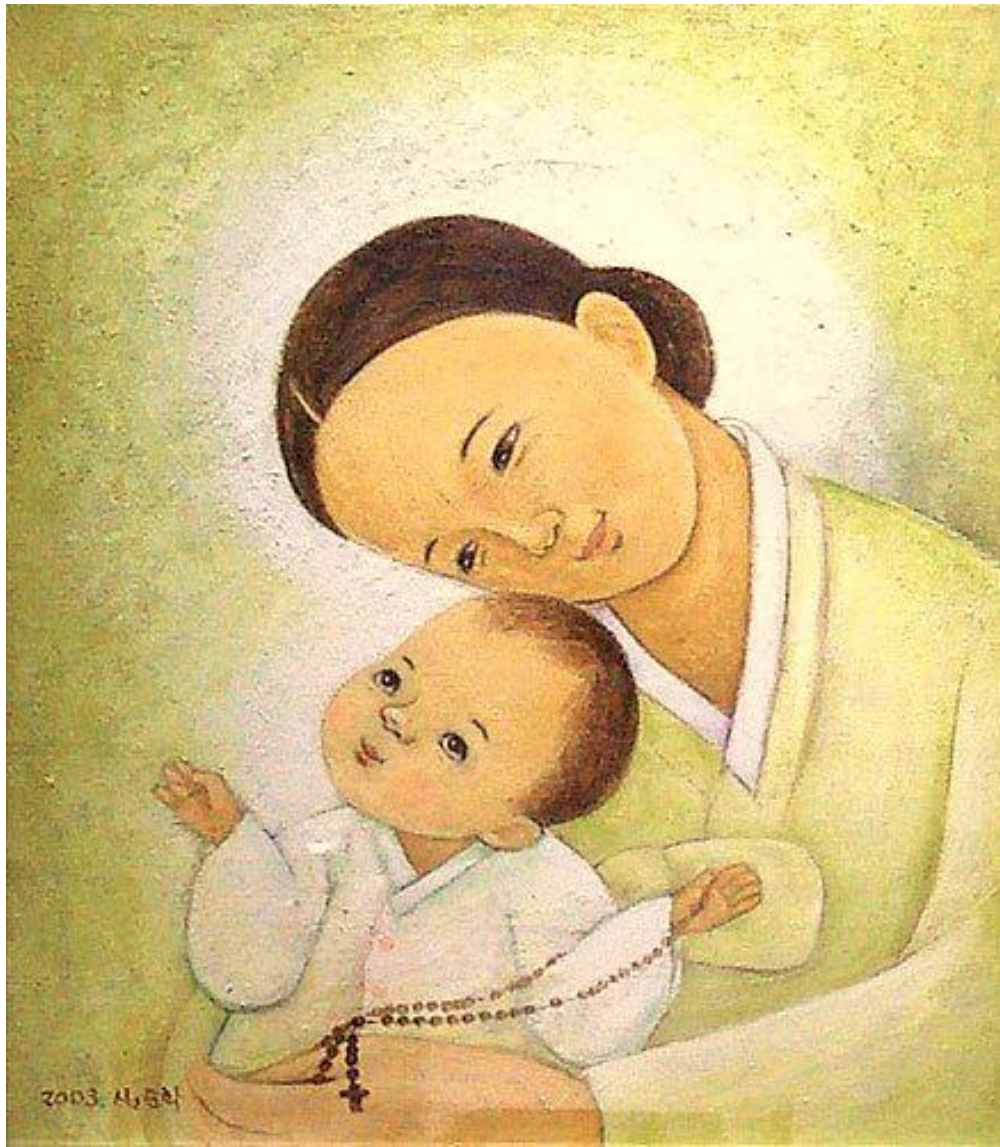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2023년 10월 22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오 28,19)



도서 “엄마의 기도” 표지 | 심순화 카타리나 그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28,20)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63번 '온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연중

온 세상에 전파하리

63

Moderato

김금자



1. 온 세 상 에 전 파 하 리 복 음 말 씀
2. 추 수 할 것 많 다 하 신 우 리 구 세



을 기쁜 소 식 들 은 우 리 온 세 상 에 알 리
주 추 수 밭 에 부름 받 아 응 답 하 는 우 리



자 빛 이 되 라 말 씀 하 신 우 리 구 세 주
들 이 세 상 에 소 금 되 어 희 생 봉 사 하



여 당 신 사 랑 당 신 평 화 당 신 구 원
리 충 실 하 고 착 히 살 아 주 님 기 리



을 모든 백 성 함 께 모 여 찬 미 하 도
며 감 사 로 이 생 활 하 는 주 의 일 께



록 주 의 은 총 우 리 에 게 내 리 주 소 서
들 주 께 영 광 드 리 리 라 세 상 끝 까 지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영원한 평화

(이사야서 2,1-5)

1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2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4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5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마태 28,16-20)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8.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0.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11. 마침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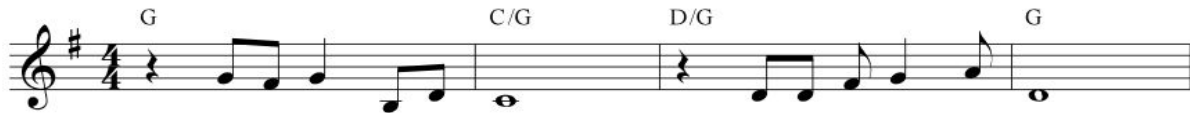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책 229번 ‘십자가 그 사랑’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29

십자가 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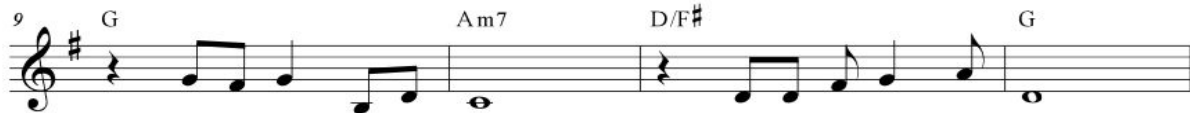
하 스데반



1.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 나 서
2.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 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 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 으 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 - 지 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 시 는 주



다시 일 으켜 세 우신 주 를 사 랑 합 니 다
내 안 에 새 일 행 하 실 주 만 바 라 보 리 라



주 나를 보호 하 시고 날 - 불 드 시 리 나는
주 너를 보호 하 시고 널 - 불 드 시 리 너는



보 - 배 롭 고 존 귀 한 주 님 의 자 녀 라 주 - 의 자 녀 라
보 - 배 롭 고 존 귀 한 주 님 의 자 녀 라 주 - 의 자 녀 라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의 날 반모임 후기

- 평소 알고 지내던 본당 교우분들의 보지 못했던 재능과 남다른 운동신경, 넘치는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날씨 또한 완벽하고 새로운 장소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AA2, 3 이태화 요한비안네)
- 완벽한 날씨, 깔끔하고 치밀하게 짜인 행사 진행,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없이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교우분들과 새로 전입하신 교우분들이 한자리에 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BL1 박성찬 바오로)
- 변경된 장소와 음식 제공 방식에 대해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참석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신부님의 옛 추억 강론도 좋았고, 완벽한 준비와 짜임새 있는 사회 진행도 훌륭하였습니다. 끝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원로 신자분들과 젊은 엄마 아빠들, 우리 성당의 미래가 될 어린아이들 모두 하나 되어 즐거움을 나누었던 하루였습니다.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화이팅!!! (Canton 강성현 베네딕토)
- 새로운 장소가 낯설고 비록 모기 밥이 되기는 하였지만, 신부님, 사목 위원분들, 그리고 진행자께서 잘 계획하고 준비해 주신 덕분에 본당의 날 행사를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노바이 1반 반장님 부부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리고, 풍성한 준비를 해주신 모든 가정에도 감사드립니다. (NV1 김영기 사도요한)
- 일년에 한번 본당 야외 미사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하 호호 웃을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야외 미사와 행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신부님과 사목 위원님들, 사랑팀의 조장님과 반장님들, 노바이 2반 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NV2 차명희 레지나)
- 저희 사랑조 뿐만 아니라 본당 신자분들과 신부님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본당의 날 행사를 통하여 반원분들 및 조원분들과도 한결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NV4 박재범 아우구스티노)



- 비 예보에 걱정했던 마음과 달리 화창한 날씨 속에 교우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반원분들 모두의 협조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C1 이수연 안젤라)
- 날씨도 좋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 행사를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로체스터 지역 특성상 지리적으로 먼 단점이 있었지만, 프라이빗함이 좋았고요,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또한 좋았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아쉬웠지만, 앞으로 매년 이곳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면 부족한 점들이 차차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RC4 권정기 안드레아)
- 본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야외 미사와 행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었기에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게임 진행, 스포츠, 아이들의 놀이터도 좋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R2 이귀영 크리스티나)
- 새로운 장소, 새 신부님과 첫 야외 미사, 새로운 진행 방식 등 조금은 낯선 상황에 대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하였으나, 신부님의 위트있는 강론으로 금세 편안한 분위기로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가을 운동회날의 기분 또한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힘써주신 사목회, 각종 단체 봉사자분들, 반장님들의 숨은 수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TR5 이규환 안드레아)
- 평소 뵈기 힘들었던 분들이 함께 모여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목회와 성모회에 감사드리고, 부족하나마 서로 나누며 함께한 반원분들과 조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WBL 이지원 안드레아)





묵주기도 성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천주교회 교우들에게 가장 친숙하고도 많이 바치게 되는 기도가 바로 묵주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친숙한 기도이지만, 가끔은 그 의미를 잊고, 우리는 그 익숙함으로 묵주기도를 은총이나 바람을 청하는 전구의 기도만으로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묵주 기도의 의미를 기도문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도 신경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 신경’은 교회의 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전례 안에서 기념하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과 기억에 대한 노력의 기도입니다. 사도적 복음으로 지속되는 복음 선포가 교회 안에 영구히 그리고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생생한 전달은 성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성경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부들은 이 성전이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믿으며 기도하는 교회의 관습이 생활 안으로 풍요로이 흘러들어오기를 바라며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기도

이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장 완전하고 뛰어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단의 신비 선포와 성경 봉독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침묵 가운데 그 신비에 집중한 다음,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 들어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모든 신비 안에서 성부께로 이끌어 주시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로마 8,15; 갈라 4,6)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청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와 맺으시는 관계를 우리 또한 맺도록 합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묵주기도에서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매 단의 시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 무한한 가치로 인해 그리스도교 기도의 바탕이 되며, 모든 기도를 품위 있게 해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 단의 첫 자리에 놓음으로써 어떤 기도문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품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모송

묵주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소리 기도로 '성모송'을 바치며 성모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협조자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구해 달라고 청합니다. '성모송'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 (루카 1,28)와 엘리사벳의 인사 (루카 1,42)가 합쳐져, 현재 우리가 바치는 기도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묵주기도에 있어서 반복되는 '성모송'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삶을 봉헌하신 성모님의 일생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성모송'은 직접적으로는 성모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사랑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을 지켜보신 성모님께서 우리의 일생 또한 지켜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모송'을 바칠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찬미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천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광송

동정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 행위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매 단을 마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바치는 '영광송'은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흠송입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기도 형식과 마찬가지로, 한 분이시며 삼위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끝맺음으로 매 단을 마무리합니다. 묵주기도에서 매 단마다 '영광송'을 바치는 것은 다음 단으로 이어지는 쉽표이면서, 본기도인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묵주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에 대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엄숙하고도 간구하는 자세가, '성모송'을 외울 때는 찬미 가득한 서정적인 태도가, '영광송'을 바칠 때는 흠송과 신비들에 대한 묵상으로 관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묵주기도의 '영광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상의 목표입니다. 창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께서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비는 기도

19세기와 20세기에 프랑스의 루르드와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있었던 성모 발현의 주요 메시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도록 요청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7월 13일 발현에서 묵주기도의 신비가 끝난 후에 바치는 '구원을 비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구원을 비는 기도'와 같은 기도문을 묵주기도의 '짧은 마침 기도'라는 제목으로 언급하며 신비의 묵상이 고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짧은 마침 기도'로 매 단을 마무리하도록 강조합니다. '구원을 비는 기도'는 미사의 말씀 전례에서 보면 보편 지향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자들은 독서로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실천하기 위해 보편 지향 기도로 말씀 전례의 열매를 맺습니다.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꼭 해야 할 청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기도는 살아 있는 이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기억함으로써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백성은 참된 영적 풍요로움에서 이로움을 얻고 개인적 관상의 지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묵주기도를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통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예수님의 유년 시절, 공생활, 수난과 부활, 그리고 천상적인 영광까지를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복음적 기도이자 묵상을 통하여 관상에 이르는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주님의 구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쇠신하여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묵주기도의 묵상은 복음에서 출발하여 복음을 실천하며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관상 기도임을 함께 기억하여야겠습니다. 10월에는 자신과 가족,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정성껏 묵주 기도를 봉헌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과 삶 안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진 그라시아)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교황 요한바오로 2세, 2002년 교서), 묵주기도 묵상 (김보록), 묵주기도학교 (박상운),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썰기도서 (아베마리아 출판사), 함께하는 여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본당 성서 공부 질문과 응답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주임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성서 공부를 본당 홈페이지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 공부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반장님이나 Google Form으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하셔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레위기 27장 28-29절, "완전 봉헌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여기에서 "완전 봉헌물"의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 봉헌물의 설명은 레위기에서 못 본 거 같습니다. 완전 봉헌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완전 봉헌물로 선택되는지 궁금합니다. (TR3 왕승진 유스티노)

A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해서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설명들이 제대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제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듯하면서도 그 설명들만으로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27장에서 이야기하는 완전 봉헌물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물을 인간으로 바치는 것 자체가 율법에 반하는 율법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만 하느님이 중간에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신학자들의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곳곳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관기를 보면 판관 입타가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갔는데 그를 맨 먼저 맞으러 나온 이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맹세를 물을 수 없었으므로 그 외동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물론 판관기의 이 이야기는 판관기 시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신명기 신학자들의 장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라든지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현재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승수 시몬 신부)

Q 민수기 22장 20-21절, 주님은 발라암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발라암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주님은 진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TR3 왕승진 유스티노)

A 발라암이 계속 떼를 쓰니깐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접으신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죄를 지음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허락하셨다고 넓은 의미에서는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섭리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를 온전하게 인정합니다. 그 온전한 자유 안에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발라암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이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관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라암이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오승수 시몬 신부)

Q 민수기 30장 3절 전체에 나오는 "맹세", "서원", "서약" 이 단어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TR3 왕승진 유스티노)

A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 단어를 설명해 드려야 하지만 제가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VOW, OATH, PLEDGE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들의 차이를 살펴보시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수 시몬 신부)

A vow is defined as a promise made to God. The promise is binding, and so differs from a simple resolution which is a present purpose to do or omit certain things in the future. An oath is an invocation to God to witness the truth of a statement. It may be express and direct, as when one swears by God Himself; or implicit and tacit, as when we swear by creatures, since they bear a special relation to the Creator and manifest His majesty and the supreme Truth in a special way: for instance, if one swears by heaven, the throne of God (Matthew 5:34), by the Holy Cross, or by the Gospels. The pledge is this total surrender of one's entire self to God. The pledge is a vehicle for total union with the Lord, through a life of penance undertaken out of love for God and for neighbor. (편집자 주.
Copyright © 2023 New Advent. <https://www.newadvent.org/cathen/>)



Q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표현이지만, 억울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자주 있습니다. 물론, 슬픔을 표현한 것인 줄 잘 알지만, 그 당시의 일반적인 언어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행동이나 옷을 입었는지 궁금합니다. (TR3 왕승진 유스티노)

A 일반적인 언어 표현은 아니고 직접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찢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옷감을 억지로 찢었다기보다는 (물론 과격한 이들은 그렇게도 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옷에 그렇게 트기 위한 부분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솔기 부분을 잡고 트는 것이죠. 그렇게 트고 나면 나중에 다시 기워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는 행동은 단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다른 외적인 표현으로는 머리에 재를 엮는 모습도 있죠. 그러한 구약의 전통이 현대 교회 안에서 살아 있는 모습은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엮는 예식이 됩니다. (오승수 시몬 신부)

Q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모세와 아론만큼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TR3 왕승진 유스티노)

A 아론과 모세가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은 죄의 대가라기보다는 그들의 임무가 거기까지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이 이야기를 후대의 신명기적 신학으로 덧칠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덧칠을 벗기고 보면 1세대의 지도자였던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그 1세대와 함께 광야에 묻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진노로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오승수 시몬 신부)